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재에 관한 연구

이 덕 만
(조선대학교)

Lee, Dukman(1995). **A Study on English Teaching Materials for Communicative Competence.** *Linguistics vol. 3.* From an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culture refers to the ways of life of a given people. Culture and language are inseparable and the study of a language should go along with the study of its culture in the most favorable sociocultural context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communicative competence of a foreign language, we should know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the language, that is, the patterns or systems of beliefs, values, and behaviors of the people who speak that language, in addition to the grammatical or discourse aspects of the language, all in the perspective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Teaching a foreign language means helping students develop knowledge of the foreign language and its culture.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developing sociocultural competence, foreign language teachers should select and organize cultural materials carefully with deep knowledge of the target culture as well as of the target language itsel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bove statements, to examine sociocultural concep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o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literary works as sociocultural teaching materials of English. Literary works have many advantages in addition to their linguistic values as materials for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view of the extensive and abstract scope of culture and literature, more people engaging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should be much interested in teaching culture through literary works.

I

각 분야에서 세계화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과 더불어 국제 교류 및 교역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과학기술 등의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는 일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업으로 대두되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치적인 의미의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 속에 하나로 통합된 집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구나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들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 등의 국제 통신망들은 가히 지구촌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적어도 비물리적인 접촉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고 있으며 머지 않아 국가와 민족까지도 초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추세 속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말은 범국민적인 구호가 되어 각계각층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이제 소위 '가상 세계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사이의 다양한 접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은 대개 필연적으로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민족들 사이의 문화적 충돌이나 오해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외국어 습득과 외국문화 이해의 필요성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경제, 정치·외교, 언론, 예술 분야 등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외국어, 특히 영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언어의 사회·문화적 규칙을 도입한 Hymes(1972)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외국어교육의 주된 목표로 간주되어 왔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어교육은 이론과 실제 면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영어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논문들에서 언급되고 있어서 진부한 느낌이 들기도 하나 1990년대에 이루어진 영어 교육 개혁의 전반에 걸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사회·문화적 규칙들을 단편적으로 도입하는 교재와 교수 기술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상황과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내용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을 할 것도 없이 언어이며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제는 언어를 사

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기도 하며 의사소통도 언어를 이용한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를 소통하고 있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문화적 행사라고까지 이해하게 되었다(최용재 1983: 161).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어 활동은 사회·문화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언어 교육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문화 교육과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이론적 배경과 그것이 우리 영어교육에 시사해주는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여 의사소통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면서도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목표문화 지도의 필요성을 밝힌다. 나아가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갖추고 있는 교재로서 문학을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고자 한다.

II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언어교육의 주된 관심은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오로지 언어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변형문법 역시 언어규칙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일에 관여함으로써 결국 언어의 구조에 몰두하였다. 시대에 따라 이론적인 기술언어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언어교육은 언어의 적절한 사용(use)은 무시하고 문법과 구조 등의 정확한 관용(usage)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문법이나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잘 터득하고서도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 구조언어학의 언어관을 언어교육에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언어 교육은 구조들의 집합으로서의 언어관을 넘어서서 언어의 고유한 기능인 의사소통과 유의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언어학으로부터 독립성을 표명하게 되었다(Brumfit and Johnson 1979: 3).

Hymes(1972), Johnson(1982), Widdowson(1972, 1978, 1985, 1987) 등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오늘날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 및 실제의 주축이 되어있는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은 기술언어학의 언어관을 언어교육에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언어학을 이용하여 언어 학습과정의 심리학적 측면과 교육학적 측면을 고려한 자료를 얻어낸다. 이 접근법은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언어 형식에 우선하여 언

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를 소통하는 기능을 중시한다. 학습활동은 문장 구조와 어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으나 사회·문화적 의사소통에서 특히 중요한 특징들을 반영하는 비언어적 측면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의 전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접근법에 의한 학습 활동은 현실감이 강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언어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규칙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언어적 사실들을 사회·문화적으로 통합해 가는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다(Richards and Rodgers 1986: 64-86).

제한된 언어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학습자들은 학습의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해야 한다. 교사는 의사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언어 수행을 조절한다. 교사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동안 학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언어 형식에 관한 오류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용인한다. 따라서 학습 활동은 교사 중심의 교실 운영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되며 관심의 초점은 문법이나 언어형식으로부터 학습자와 의사 소통의 효율성과 능력으로 전환된다. 현대 언어교수 이론의 중심이 된 의사소통 접근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II

Chomsky(1965)는 이상적인 화자·청자가 내재화한 언어체계나 문법 지식을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심리학적인 측면과 실제 사용을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상적인 화자·청자란 언어의 실제 사용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 변이가 배제된 순수한 언어적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의 언어능력은 이상화된 능력이며 언어이론의 일차적인 관심이 된다. 기저의 언어능력에 지배되지만 다양한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환경에 의한 변형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표출되는 언어수행은 기술 언어학의 관심 밖에 있다. 그러나 언어능력 특히 언어습득 능력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언어수행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언어의 연구

대상은 언어능력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언어 연구는 언어수행으로부터 시작된다.

Hymes(1972)는 이러한 언어능력은 순전히 동질적인 언어사회에서 작용하는 이상적인 화자·청자의 지식으로서 너무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반박한다. 결국 우리가 관여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의 실제 사용에 해당되는 언어수행이며 이것은 동질적인 언어사회 내에서 작용하는 지식으로 특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질적인 언어사회에서의 비이상적인 화자와 청자를 언급하면서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포괄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의사를 소통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일정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가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 구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능력은 의사소통을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언어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의사소통 능력으로 통합된다. 이 능력은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수행가능성과 적절성과 실용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Brumfit and Johnson 1979: 18-20). 따라서 언어교육에서는 언어의 구조적 체계와 어휘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도입해야 한다.

Canale and Swain은 종래의 언어관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언어관을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구성 성분으로 문법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과 사회·언어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과 책략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들고 있다. 문법능력이란 Chomsky의 언어능력에 해당되는 어휘,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의 규칙들에 대한 내재적 지식, 즉 언어의 신호 체계이며, 담화능력은 문법능력을 다양하게 보완하여 문장들을 유기적인 담화로 연결하고 일정한 발화들의 의미를 하나로 통일하는 지식이다. 사회·언어능력은 일정한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적 상황에서 의사를 소통하는 데 필

요한 사회·문화적 규칙들에 대한 지식, 즉 언어의 사회·문화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Canale and Swain 1980: 28-30).

의사소통 접근법의 수업 목표는 학습자가 의사를 적절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이 네 가지 능력들을 균형 있게 습득하여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언어 교육자들은 여전히 구조주의나 인지주의적 언어관에 입각하여 언어 능력, 즉 문법 능력이나 담화 능력을 기르는 활동에 몰두했다. 사회문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문화 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언어의 지식보다 의사소통 기능을, 문장보다는 담화를, 관용(usage)보다 사용(use)을, 정확성(accuracy)보다 유창성(fluency)을 중시하게 되었다. 오늘날, 언어 교육에서 언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도 이제까지 소홀히 다루었던 사회·문화 능력을 배양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언어 활동의 현장감 있는 맥락과 텍스트를 강조한다.

IV

영어를 모국어로 가르치는 나라에서는 기본 문법과 어휘를 훈련하는 단계가 지나면 문학작품을 다루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상급반에서 읽는 문학작품의 양은 상당한 것이다. 우리 나라 아동들도 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대개 동화 등의 문학작품을 많이 읽는다. 그러나 영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다루게 되는 시기는 모방, 암기, 문형 연습, 대치 연습 등에 치중하는 초급 단계를 지나서부터이다(Topping 1968: 96). 전통적으로 일반 교양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었던 외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은 언어 교육적 가치가 당연시되어 사회·문화적 맥락에 근거한 학습 경험의 절정으로 간주되었다(Marchwardt 1978: 3-7). 그러나, 1960년대부터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제 거래의 수단으로서 외국어의 실용성이 중시됨에 따라, 문학작품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자료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중심 학습 프로그램들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언어 교육의 목적이 순수한 인문 교양을 기르는 일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배양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언어 교육자들은 언어 능력으로부터 의사소통 능력으로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이

두 능력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해결할 수 없는 교재로 간주된 문학 작품은 점차 냉대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교양, 언어 지식과 분석, 의사 소통, 예술 활동 등은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그 비중을 달리하면서 각기 영어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 시대적 목적에 따라 언어 교재로서 문학작품의 역할도 성취의 길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영어 교육 역시 서양의 언어 교육 이론과 실제에 바탕을 두고 시차적으로 서양의 모델을 불완전하게 답습해왔던 터라, 문학 작품에 대한 언어 교육적 냉대는 서양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대외 의존적 경제 발전과 더불어 1970년대부터 실용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급격히 서구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문법 번역 교수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영어 교실에서 번역 독해의 주된 재료였던 문학작품을 배제하는 모험에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었다.

우리의 외국어 교육은 처음부터 서양의 혁신적인 언어 이론과 외국어 교수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서양에서는 금세기 중엽에 심리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헌에 힘입어 외국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교수법, 이중 언어 교육, 시청각 기자재 도입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언어 교육자들은 그 후 30여년이나 지나서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회의의 품고 새로운 교재와 교수법을 시험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종래의 교재와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낡은 교재인 서양의 문학작품을 배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어 교육자들의 역량과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교육 행정의 보수성 등으로 인해서 문법 번역 교수법은 달라진 교재와 더불어 상당한 부분이 외국어 교실에 존속해오고 있다.

서양의 언어 연구 방법과 언어 교육 접근법을 받아들여지게 된 우리의 언어 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였다. 영어교육과나 영어영문과 학생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영어(교육)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열심히 학습했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고전 영문학 작품들을 독해하기가 어려워 우리 학생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해 동안 영문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 모국어 화자와 기본적인 대화도 제대로 나눌 수 없었다. 그들은 영어 구조와 영문학 이론은 상당히 알고 있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귀머거리나 다름없었다. 영문

독해의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영문 편지나 간단한 보고서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언어 교육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새삼스럽게 각성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이른 과목으로서 영문학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의사소통 기능을 숙달하기 위한 교재로서는 대개 문학작품을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점차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제 거래와 교류를 위해서 외국어의 실용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응용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학문의 실용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문과학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외국어 교육에서도 문학작품 이외의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교재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부적합하다고 간주된 문학작품은 점차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외국어 교육은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었다. 외국어는 이제 인문 교양을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써 미래의 한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관념이 대두되었다. 외국어가 단순히 외래 문화의 섭취를 위한 막연한 통로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외국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생존 공간을 국제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생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따라서 말하기와 쓰기 기능을 중심으로 한 표현 능력이 강조되었고 외국의 신문, 잡지와 전파 매체 등의 자료 환경을 학습에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전방위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외국어 교육의 주된 기반이 되어왔던 문학작품은 실용적 학문을 추구하는 전방위 학습에서 냉대를 받기 시작했다. 영문학을 소재로 한 문법, 번역, 독해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과학 등의 실질 과목들을 소재로 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자리를 대폭 양보해야 했다(이한빈 1980: 2-3).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어 교재로서 문학작품이 지닌 가치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으나 대학 영어 독해 등의 한정된 분야에서 명맥을 유지해 온 문학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급속히 발전해 온 비디오 등의 시청각 매체와 더불어 다시 그 가능성을 시위하고 있다. 원하기만 하면 자막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걸작과 고전 등을 언제든지 가정용 비디오 등의 기기들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머지 않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재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일부 언어 교육자들에 의해서이긴 하나 외국어 교실에서 십여 년간 거의 침묵을 지켜오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최첨단 전자 미디어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 동향에서 소외 받았던 문학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무한 경쟁의 개방화에 따라 영어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어 있는 지금 외국어 교실에 문학을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은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물론, 순수 문학의 입장에서는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 첨단 전자 영상 매체에 빼앗긴 문학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영상 매체에 저항하는 양식의 문학을 강조할 수 있다. 작가들이 순수 문학에 대한 신념을 획득하고 자아를 환기시켜 반성하는 문학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문학 교육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활동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작가들은 저마다 순수 문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새로운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기존의 진부한 순수 문학 형식으로는 급변하는 세계를 따라 잡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기법을 과감히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영상 매체와 제휴하여 포용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기변신을 꾀하여 언어와 소리와 영상을 결합한 일종의 중간 문학으로서 교시적 서정과 문학을 뛰어넘는 문화에로의 관심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작품의 부흥은 타당성을 얻게 된다.

최근에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는 이유는 일부 영어 교육자들이 지나치게 다양화되고 피상적인 영어 교재들에 회의를 느끼고 과거의 정서적인 문화적 체험에 향수를 느끼게 된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학문 연구의 절정으로 간주되었던 문학작품이 다시 영어 교실에 등장하게 된 동기는 바로 교육자들의 복고적 태도이다. 그 동안 문화적 체험은 대학 영문학 교육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대학 영문학 교육의 기능에 회의를 갖게 된 일부 영어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보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부담없이 문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영어의 학습과 문학 수련의 두 가지 기능은 한국 대학에서 영문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큰 목표가 되었다. 수업 현장에서 이 두 가지 목표는 동등한 무게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두 기능이 조화 있게 수행되지 않을 때는 학생들은 영어를 배웠지만 문학을 모르거나 문학은 배웠지만 영어는 잘 읽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자칫하면 영어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창배 1982: 2).

우리 나라 대학의 영문학 교육에서는 작품을 문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어학적 훈련에 치중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하면 문학 공부 내지 연구가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영어 습득 정도가 고도의 언어 예술인 문학 작품을 읽기에는 너무 낮고 문학 학습의 동기도 빈약하여 결국

언어 교실과 유사한 활동을 통해서 영어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십 여 년 동안 문학을 통한 영어 교육은 영문학 교수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이제 영어 교육 자체는 고유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문학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영어 교육이 아닌 영어 교육의 관점에서 문학의 이용을 모색해야 한다. 흔히 문학 교육의 실패 요인들로 지적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학습 동기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적성과 동기를 무시한 대입 제도에 있다고 본다. 외국 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도 대학 이전에 이미 문학 공부를 통하여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는 꼭 형식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고 자연스런 지적 및 정서적 체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영어 학습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언어 이론들과 교수법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된 우리 영어 교육(학)자들이 영어 교육에서 언어학이 하는 역할에 회의의 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구조 문법과 변형 문법 등의 이론들이 외국어 교육에 오용되거나 남용되었으며 언어 교육이 결코 단 하나의 이론이나 교수법으로 시종일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70년대까지 유행했던 '새로운 것일수록 더 좋다'는 생각은 이제 약화되었다. 아직도 많은 외국어 교사들이 새로운 방법론과 교수법을 꾸준히 시험하고 또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기존 방법들로 관심을 돌리고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문학작품은 보다 편안하고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로 다시 선호되고 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이 소외되어 오긴 했지만 일부 외국어 교사들은 부분적으로나마 특히 대학의 상급반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을 가끔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재에 단편과 회극들의 일부가 실린 경우가 있고 비디오를 통해서 장편에 접근을 시도한 교사들도 있다. 여전히 우리 외국어 교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법·번역 교수법의 독해 교재로서 문학이 지닌 가치도 만만치 않다. 또한, 그 누구도 문학작품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어를 매체로 하여 인간의 삶을 표현한 문학은 문학적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세계관과 인생관에 접하게 함으로써 결국 보다 풍부한 삶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다. 문학은 인생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하고 마음을 보다 넓혀주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준다. 문학작품에 고유한 이 모든 가치들은 언어적으로, 심미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문학작품에 풍부하게 구현되어 있다. 문학작품이 영어교육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 작품에 내재된 문학적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학적 체험은 바로 그 문화의 일면에 대한 것이며 여러 문학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V

뉴스나 해설이나 산문 등과는 달리 문학작품은 흔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 독자는 자신과 문학작품 이외의 상황을 잊고 지적 정서적으로 그 문학작품에 참여하여 문학적 체험(literary experience)이라고 하는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작품이 문학 연구는 물론, 영어학습에서 성공적인 교재로 사용되려면 문학적 체험으로 읽혀져야 한다(Scott 1965: 294). 언어를 매체로 한 삶의 표현인 문학은 지식을 위한 과목들과는 달리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하여 결국 더 나은 삶과 인간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언어학습 자료를 통해서 인생을 흥미하게 하고 인간성을 고양시키고 아름다움과 기쁨을 통해 심미적인 체험을 맛보게 한다.

언어 활동에 예술성을 부여해 주는 가장 강력한 매체는 문학작품이다. 문학작품은 언어를 통해서 문화적 및 문학적 체험을 획득 시킴으로써 정보와 기쁨을 주고 인간의 품위를 고양시키는 언어 예술이기 때문이다. 15세기에 활자 인쇄술이 발명됨으로써 종래에 주로 말과 기억에 의존하던 구두 문학의 형태가 시각과 두뇌 작용에 의존하는 본격적인 활자 예술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학은 오늘날과 같은 힘을 갖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사람들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인쇄된 책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 만남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비인간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소리 없는 음악이 존재할 수 없듯이 문학은 활자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지고의 언어 활동은 문학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언어 활동, 특히 언어 교육 활동에 문학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시되었으며 교양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학의 역할도 강조되어 왔다. 한국의 대학 고학년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서는 문학적 접근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문학이라는 보다 편안한 매체에 복귀하고 학생들은 다시 서양의 고전들을 즐겁게 흥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서양에서는 문학작품이 여러 언어 프로그램들에서 부흥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언어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는 언어 교육자들은 특히 외국어에 대한 문화적 통찰력을 기르는 일과 관련하여 언어 교실에서 문학작품이 하는 역할을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언어 교육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학생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모국어 화자와 직접 상호 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의사 소통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적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언어 표현을 떠받치는 문화에 대한 고리이며 외국 학생에게 자국민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화 자각에 이르도록 자국 문화를 개방해 준다(Povey 1972: 187). 문학에 내재된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문학작품을 모국어 화자와 상호 작용의 경험을 갖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최근의 방법론들은 단지 언어적 숙달만을 목표로 하거나 문학 감상의 기술을 목표로 한 문학 교육에 집중한 나머지 문학작품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문학작품을 매체로 한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가 분리되는 현상은 서양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묘한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언어 교육자들이 언어 교실에서 문학을 사용하는 데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그들의 접근 방식은 대개 문학의 언어적 및 심미적 양상에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문학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온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취한 방법은 피상적이고 직관적이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결핍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Povey(1972), Widdowson(1985), Brumfit(1985)와 같은 일부 언어 교육(학)자들은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작품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언어적 관점이나 심미적 관점에서 문학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 문학작품의 순수 예술적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전에 간과했던 문제들, 즉 언어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방법과 교육학적으로 문학을 보다 잘 가르치는 방법과 문학작품을 통해서 언어 감각을 얻어내는 방법과 같은 문제들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학작품을 통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은 무시되거나 경시되고 있다. Topping(1968), Barid(1969) 등과 같이 언어 연구의 장난질로부터 문학을 보호하여 미적 관조를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의사 소통으로서의 언어 교육을 강조한 Widdowson(1985)은 언어의 사용(use)과 관용(usage)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학 작품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학의 역할을 역설한다. 그는 문학의 정신이 과학의 체계와 방법에 맞지 않아 유해하고 언어학과 문체론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견해는 논평할만한 가치도 없

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견해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진실을 밝히는 문학의 본질적인 힘을 언어학이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언어 연구에 반항한 것이며 문학 연구에 언어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난한 것이라고 말한다(Widdowson 1985: 182).

그는 문학 교육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독자로서 문학을 연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며 그 능력을 언어의 사용으로, 또 문학 연구의 전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해외에서의 영문학 교육은 영어 교육과 통합된 경우에만 의미와 목적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Ibid.: 194). 그는 이 책에서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어 교육과 문학의 관계에 관한 호의적인 견해를 요약하고 있으나 문학에서 해석상의 대안으로서 독자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McKay(1982: 531-4)는 미적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잘 선정하면 문학이 독해력의 개발과 언어 사용과 언어 관용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녀는 문학 텍스트가 특수한 문화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만큼 ESL 학생들이 읽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서 단지 문화의 입장을 변호하여 간단하게 문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가설들을 조사하는 일이 유익한가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문학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문화적 가설들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점들에 대해 보다 큰 관용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Povey(1972: 189-9))는 오래 전부터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서 문화 교육과 문학 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We have focused our attention too exclusively upon the language problem. ...We have overlooked--or, at least, underrated--the discovery, that a far greater measure of non-comprehension of imaginative writing derives from a misunderstanding or ignorance of the whole cultural context out of which literature develops. The literature of a country IS that country. There is no more revealing evidence of a nation's individuality, its sense of itself, and its world than the literature its writers have created.

그는 이와 같이 외국어 학습에서 문화와 문학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 문화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작품은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표현을 고무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의사 소통 기능을 개발하고 외국 문화를 보다 잘 이해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 문화를 이해하

기 위한 문학 교육의 이론적인 체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실체를 반영하고 있는 문학작품은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갖추고 있다. Eagleton(1976)은 근대 문학 이론의 역사를 저자중심 시대(낭만주의와 19세기)와 텍스트중심 시대(신비평)와 독자중심 시대(최근의 동향)로 구분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한 독자중심 비평(audience-oriented criticism)은 독서를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독자들은 동일한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나, 독자가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독서에 개입시키는 데 반해서 텍스트 자체는 독자에게 보다 강한 영향을 준다. 독자와 정면으로 맞서서 교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학 텍스트는 독자의 감정이입(empathy)을 조성하고 문화 접변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 텍스트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의 이문화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상학적 견해에 의하면, 텍스트는 일련의 인지 작용들을 유발시켜서 문학 작품으로 형성하는 단서들이 고도로 체계화된 조직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일관된 의미를 추구하는 독자는 독서 중에 텍스트와 대등하게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의미를 분석하고 구성하여 문학작품을 실감하게 된다. 독서와 의미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두 요소는 상관물로서만 고유한 성질을 띠게 된다. 역동적인 상호 작용에서 의미는 부단히 구현된다.

따라서 독자마다 텍스트를 읽는 방법, 즉 텍스트의 의미 차이를 배우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이문화간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읽어야 할 것이다. 독자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독서에 개입시키지만 텍스트도 필연적으로 독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문학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독서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조성하고 문화 접변을 촉진하며 이문화간 이해를 증진하기 때문에, 문화 교육의 교재로 적합하다.

한편, Widdowson(1975: 31-5)은 언어 교육의 일반 원리를 확대하여 의사 소통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교육학적인 주제와 교과와 개념을 구분하고, 담화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언어학자의 텍스트와 비평가의 메시지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문학 작품을 하나의 담화로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언어 항목의 의미를 담화의 의미와 상관시켜야 한다. 의사 소통 능력이 문학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 이러한 상관 절차는 담화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이해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과 문학 감상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상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문학 교육 이론을 제시한다. 문학의 담화를 해석함으로써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믿고서, 그는 자신이 제안한 원리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례들로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Ibid.: 104-7)

언어와 문화는 사실상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Brooks 1976:25) 외국어 교육은 외국의 문화를 습득시키는 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외국 문화 교육은 필수적이다(Ibid.: 214). 외국어 교사는 학생들이 외국어의 표현들에 모국어의 개념들을 틀리게 갖다 붙이는 자민족중심적인 무의미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언어 기호 및 규칙과 더불어 그 문화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외국 문화의 복잡한 특질들과 미묘한 의미들과 독특한 어조에 대한 이문화간 이해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외국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학은 그 문화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신선하고 구체적이고 진정하고 강력한 문화적 요인과 의미들을 내포한 귀중한 사회·문화적 보고이다. 문학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인간애를 담고 있고 인간성이 풍부하다. 독특한 매력과 감정이입의 힘을 지닌 문학은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의무이자 커다란 기쁨이기도 하다.

VI

앞에서 일정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문학에서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Seelye 1974: 39). 이제 그러한 주장을 우리 영어 교실의 번역 훈련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영어 교육의 초기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주로 번역에 의존하여 왔다. 근래에 약간 달라질 기미를 보이긴 하지만 초급 청취·구술 교실에서부터 일부 대학원 세미나에서까지 찬양 받는 번역 연습이 Lado(1972: 451-4)식의 독서에 자리를 양보할 만한 풍토는 아닌 것 같다.

Marckwardt(1978: 38)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유혹이 강한데다 번역 이외의 수업 활동을 도입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

황에서는 번역에 대한 유혹은 압도적인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우리 영어 교육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재의 해석과 적절성과 문학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등에 대한 구술 문답 연습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온 교사들도 있다.

King(1973: 53)은 교과과정과 번역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는 번역의 존재 이유를 전통, 시험, 그리고 번역으로 언어의 사용과 이해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번역을 하지 못하는 실례를 들면서 번역을 청취, 구술, 독서, 작문과 다른 별개의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번역은 대학 교과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Bolitho(1976: 114)도 이중언어 사용자들 중에도 번역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다른 기능에 당연히 부수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하나의 독립된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reen(1970: 219-223)은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면서 번역 교육이 매우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단락의 산문을 제시하여 번역에 깊이 몰입시키면 학생 스스로 필요한 해답을 찾아 낼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번역 훈련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술 훈련을 보다 강조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실정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주장에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번역이나 언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는 좋은 번역은 구술 기능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다. Bolitho(1976: 114)는 각 학생이 문장을 번역하고 나서 침묵으로 빠져드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구술 접근이 수업에 보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한다.

King(1973: 53)은 영어의 실용적인 면에 근거하여 교과과정에 번역을 포함해야 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는 상급 수준의 영어를 배운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서 영어와 모국어의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한다. 이 점은 우리의 실정과 유사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영한 번역에 할애하고 실무 활동의 많은 부분을 번역과 통역에 매달린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대개 난이도와 질이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우리의 영어 교육에서 번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번역 기능에 대한 실용적인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 날로 증가해 가는 전문 정보들의 교류를 고려해 보면 번역 위주의 방법은 정당화된다. 한편, 외국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과 똑같이 번역을 통해서 모국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Catford(1965: 18)는 번역의 장점을 논의한 책의 서문에서 번역은 그 성질을 이해하여 세심하게 통제하면 본질적으로 위험한 기술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번역 위주의 불균형에서 벗어나서 다른 언어 기능들도 보다 강조하여 교과 과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들의 구술 기능이 결핍된 이유를 전적으로 문법·번역 위주의 영어 교육에 돌리고 그 폐단을 확대하여 배척하는 것보다는 문법·번역을 바탕으로 한 정독을 Lado(1972)식의 포괄적인 독서로 전환하여 문학작품을 매체로 하여 청취나 구술 활동에 적절히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의 실정에서는 선진 정보, 특히 학문 분야와 가장 긴밀하게 관련된 언어 기능인 독서가 다른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기능도 독서이다. 중등학교 영어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 표현 능력에 수용 능력을 선행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영어교재로서 문화의 보고인 문학작품을 도입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관심이 빈약하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언어 자료들을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생존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문학을 통합한 언어교육은 고답적인 단일한 방안으로 간주되기 쉽다. 언어적, 문화적,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장감 있는 맥락으로서 실용적 가치도 지니고 있는 문학 작품은 청취와 구술 훈련에 뿐만 아니라 독서 위주의 대학 영어 교육에서도 강력한 통합적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VII

오늘날 국제화의 추세 속에서 영어교육(학)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영어교육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을 영어교육에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에서 영어 상용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교육은 믿을만한 교수요목을 갖추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문화 정보를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문화적 변수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고, 둘째, 오랜 기간에 걸친 획일적인 언어 교육 정책으로 인한 교수원리, 교수방법, 교재 등의 경직성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현장감과 현실성이 강한 교재를 도입할 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교수법인 의사소통 접근법의 원리를 재검토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불가분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영어교육의 입장에서 문학작품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언어적, 심미적, 교육적, 오락적 가치들을 고찰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닌 영어 교재로서 문학작품이 대단히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내용은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상관시켜 현장감 있는 맥락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맥락을 갖춘 진정한 텍스트로서 문학작품은 문화 능력과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도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교통수단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는 바야흐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지구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추세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사실상 세계어의 역할을 하는 영어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마스크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범국민적인 세계화의 노력에 역행하는 한국인, 특히 해외 여행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들의 잘못은 언어 능력의 부족에 있다기보다는 자국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편적인 문화현상들로부터 문화의 가시적인 표층 구조만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생긴다. 그릇된 오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태도는 민족이나 인종간의 불신이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심한 갈등과 대결로 악화될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영어교육(학)자들은 이문화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언어와 문화와 문학이 통합된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와 관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능력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내재화되는 추상적인 정신구조이다. 문학작품을 매체로 하여 이문화의 심층구조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문화간 이해를 위한 맥락으로서 문학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 용 주

* 이 논문은 199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참 고 문 헌

- 이창배. 1982. "한국대학에서의 영문학 교육." <영어교육>, 23. 1-8.
- 이한빈. 1980. "미래가 요구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19. 1-4.
- 조명원, 이홍수. 1991. <영어교육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최용재. 1978. "교양영어교육의 당면문제." <영어교육>, 15. 31-42.
- _____. 1982. <외국어 교습의 원리> 서울: 고려원.
- Baird, A. 1969. "Literature Overseas: The Question of Linguistic Competence." *ELT* 23/3. pp. 279-283.
- Bolitho, A. R. 1976. "Translation--an End but not a Mean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0 (January). pp. 110-114.
- Brooks, Nelson. 1976. "The Analy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 *The cultural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ed. R.C. Lafayette. Skokie, IL: National Textbook.
- Brown, H. Douglas.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rumfit, C. J. 1985.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New York: Pergamon Press.
- _____. and K. Johnson. 1979. *The Communicative Approaches to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nale, M. and M. Swain. 1980. "Theoretical Bases for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pp. 1-47.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Eagleton, T. 1976. *Criticism and Ideology*. London: Verso Edition.
- Green, J. F. 1970. "The Use of the Mother Tongue and the Teaching of Transla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May). pp. 219-223.
- Hymes, Dell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ed. J. Pride and J. Holme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Johnson, K. 1982.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and Methodology*. Oxford: Pergamon.
- King, P. B. 1973. "Translation in the English Language Course."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28 (November). p. 53-59.
- Lado, Robert. 1972. "Evidence for an Expanded Role for Readin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5 (May). pp. 451-4.
- Marchwardt, A. 1978. *The Place of Literature in TESO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ckay, S. 1982. "Literature in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16/4. pp. 529-538.
- Povey, J. F. 1972. "Literature in TESOL Programs: The Problems of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 Allen H. B. and R. N. Campbell. New York: McGraw-Hill, Inc.
- Richards J. C. and T. S. Rodgers. 1986.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A description and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ott, Charles T. 1965. "Literature and the ESL Program."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 Allen H. B.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Seelye, H. Ned. 1974. "An Analysis and Teaching of Cross-Cultural Context." ed. Emma M Birkmaier.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 Overview: ACTFL Review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1. Skokie,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mpany.
- Topping, D. M. 1968. "Linguistics or Literature: An Approach to Language." *TESOL Quarterly* 2/2. pp. 95-100.
- Widdowson, H. G. 1972. "The Teaching of English as Communica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27/1. pp. 15-18.
- _____. 1975. *Stylistics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London: Longman Group Ltd.
- _____.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The Teaching, Learning, and Studying of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7. "Design Principles for a Communicative Grammar." *ELT Documents* 124:

The Practice of Communicative Teaching. Oxford:
Pergamon P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과
이덕만